

## 러시아 산불 피해 현황과 곡물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전망

### 1. 러시아 산불 피해 현황

#### □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화재로 곡물 수확에 큰 피해

- 2010년 6월 중순 이후 40년만의 최악의 폭염<sup>1)</sup>과 가뭄의 여파로 7월부터 러시아 중서부 22개 지역 등 전국적으로 500여 차례 이상 화재가 동시에 발생함.
- 러시아 정부는 8월 2일 비상사태를 선포<sup>2)</sup>하면서 비상사태부(Ministry of Emergency Situations)를 설치하였으며, 일반인의 출입과 경제활동을 일시 제한하고 산불 진압을 위한 군 병력을 투입하였음.<sup>3)</sup>
- 러시아 비상사태부의 발표에 의하면, 이번 산불로 인한 러시아 내 피해 지역이 2010년 8월 16일 기준 20만 ha를 넘었으며, 이는 서울<sup>4)</sup>의 3.3배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임.
- 2010년 6월 이후 약 29,500건의 산불이 발생해 53명이 사망했고, 2,000여 채 이상의 가옥이 소실되었으며 피해액 규모도 러시아 국내총생산(GDP)의 1%에 해당하는 1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.

1) 2000~09년까지 모스크바의 7월 평균 최고기온이 24℃였으나, 2010년 7월 기온은 31℃를 기록하였고 8월 평균 최고기온은 35℃에 달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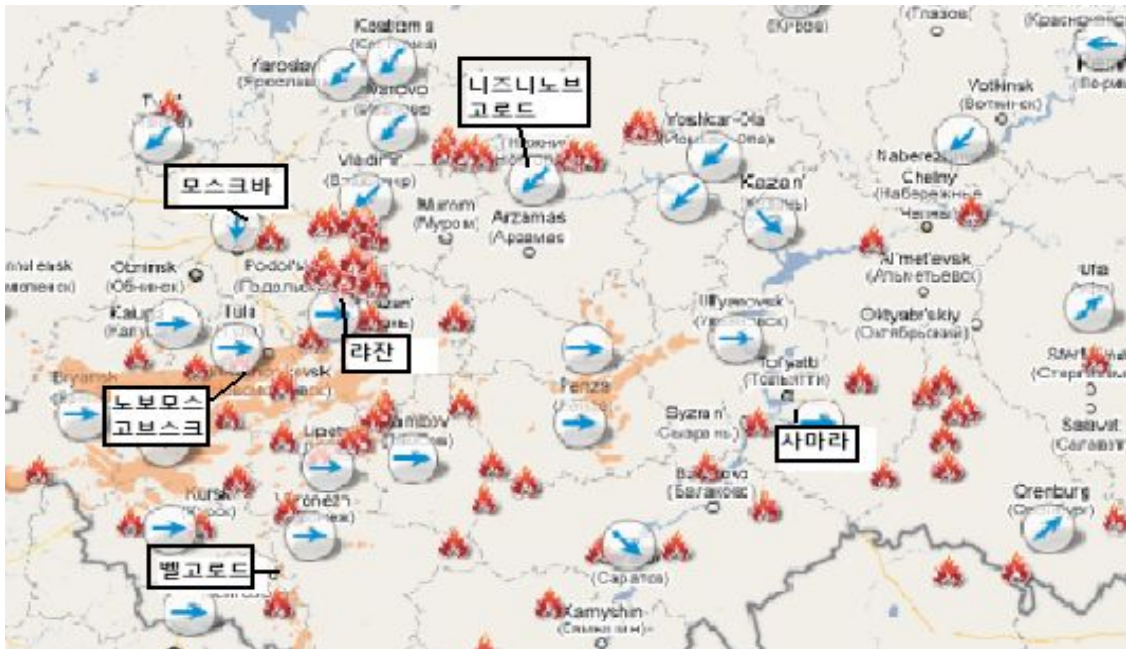
2) 러시아 정부는 2010년 8월 23일자로 비상사태 선포를 모두 해제함.

3) 러시아 정부는 산불 진압을 위해 14만 7천명에 달하는 인원을 투입함.

4) 서울 면적은 약 60,500 ha임.

- 모스크바 주변 늪지대의 이탄(泥炭)층<sup>5)</sup>에 불이 붙어 심한 스모그와 유해가스가 배출되면서 인명 피해가 확산되었으며, 항공기 운항도 일시 중단됨.
- 중서부 지역에 3주간 지속된 산불로 곡물 수확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곡창지대의 4분의 1이 산불 피해를 입어 러시아 곡물수확량은 6,000~6,500만 톤 규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.
- 푸틴 총리는 농업분야에 대한 약 11억 달러(350억 루블)의 긴급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.
- EU가 90,000유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우크라이나, 벨로루시, 이탈리아, 프랑스, 터키 등 인근 국가들이 각종 구호물품 및 구조 병력을 지원하였음.

<그림 1> 러시아 중서부 지역 화재 발생 현황



주: 불꽃 표시된 지역이 화재 발생 지역임.

자료: RIA NOVOSTI.

5) 부패와 분해가 완전히 되지 않은 식물의 유해가 진흙과 함께 높이나 못의 물 밑에 퇴적한 지층을 의미함.

## 2. 러시아 곡물수출금지 조치의 내용

### □ 곡물 생산량 급감에 따른 곡물수출금지 조치 발표

- 푸틴 총리는 러시아산 곡물 수출을 2010년 8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전면 중단한 데 이어, 9월 2일 곡물수출금지 조치 기한을 2011년 수확기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.
- 이는 세계 3위의 밀 수출국인 러시아가 국내재고량 유지를 통한 자국 내 가격 안정과 가축사료 확보를 위한 것임.
- 자연재해로 인한 밀 수확량 감소로 올해 러시아의 밀 수출량은 2009년 2,140만 톤에서 1,500만 톤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
### □ 주요 수출국의 곡물 수출금지에 따른 주요 곡물가격 폭등세

- 러시아, 우크라이나 등의 곡물수출 금지 조치로 세계 주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였음.
- 우크라이나(보리 수출: 세계 1위, 밀 수출: 세계 6위)는 보리와 밀 수출을 2010년 말까지 전년의 절반 수준인 총 250만 톤으로 제한했고, 밀 생산대국인 카자흐스탄도 자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출 제한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.
-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(CBOT)에서 거래되는 국제 밀 가격이 7월 한 달에만 42% 급등하는 등 51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세를 나타냄.
-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 가격은 2010년 6월 부셸<sup>6)</sup> 당 평균 4.5달러 수준이었으나, 7월 7일에 5달러를 돌파한 후 8월 평균가격이 7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으며, 8월 말에는 다소 하락한 6.47달러를 기록함.

6) 1부셸은 27.216kg임.

- 또 옥수수과 대두(콩)는 2010년 6월 부셸 당 각각 3.47달러, 9.49달러 수준을 기록했으나 8월에는 각각 4달러, 10.44달러로 가격 상승세를 나타냄.

<그림 2> 밀 가격 추이 그래프



자료: 시카고곡물거래소(CBOT).

- 러시아산 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집트와 카자흐스탄산 보리의 최대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곡물 수급에 큰 타격을 받음.
- 우크라이나산 보리를 가축용 사료로 사용하는 유럽에서는 닭과 돼지 등 축산물 가격 급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애그플레이션(agflation)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.

### 3. 러시아 곡물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향후 전망

#### □ 장기적으로 곡물파동 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전망

- 2010년 세계 밀 재고는 1억 8,700만 톤으로 지난해 1억 9,300만 톤 대비 3.1% 감소하는 것에 그쳐 밀 생산량 감소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.

7) 애그플레이션이란 애그리컬처(agriculture)와 인플레이션(inflation)을 합성한 신조어로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음.

- EU 국가들의 곡물 생산량은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후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<sup>8)</sup>되고 있어 피해가 컸던 동유럽을 제외한 주요 밀 생산국의 작황과 재고 규모를 감안하면 당장 밀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.
- 곡물 가격은 일시적 폭등세를 나타낸 후 향후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  - 단기간 주요 국제곡물의 수출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현재 상황은 2008년 당시의 애그플레이션 사태와는 수급 여건이 달라 급등 현상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임.<sup>9)</sup>
  - 2008년 애그플레이션 사태는 주요 곡물의 공급부족과 유가급등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용 소비가 증가해 모든 곡물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발생했으나, 현재 곡물가격 폭등 사태는 투기성 유동자금의 곡물 시장 유입이 주된 요인임.
  - 산불 사태로 인한 곡창지대 피해 현황이 명확히 파악된 이후에는 곡물 시장에 유입된 투기성 자금이 유출되면서 곡물 가격의 고공 행진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.

책임조사역 허정옥, 인턴 이재상  
 (☎ 02-3779-6653/5659)  
 E-mail: [johuh@koreaexim.go.kr](mailto:johuh@koreaexim.go.kr)

8) EU 역내에서 연간 3억 톤의 곡물이 생산되는데,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100만 톤에 불과함.

9) 미국의 밀 재고량은 2008년보다 800만 톤 증가한 3,000만 톤으로 추정됨.